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선수단 여러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님,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또 이렇게 가득 적어 왔습니다만 선수단 여러분 다리 아프실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시·도의 명예를 위해서 힘껏 싸우십시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시·도민을 대표해서 전국의 시장, 도지사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참가해 주신 동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모두가 정말 가슴 찡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참가에 감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선수단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십시오. 그러나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십시오. 모두가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다 함께 정정당당한 경기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바랍니다.